

月沙 李廷龜의 戊戌辨誣 陳奏副使와 관련된 送別 기록 연구*

A Study of the Parting Records Related
to Wolsa Yi Jung-gui's Musulbyunmu Jinju Busa

강 순 애 (Kang, Soon Ae)**

◁ 목 차 ▷

1. 서 론	4. 무술변무 진주부사와 관련된 송별 기록의 분석
2. 정응태의 조선무고사건	5. 결 론
3. 월사 이정귀의 무술변무를 위한 외교활동	<참고문헌>

< 초 목 >

이 글은 현재 남아있는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 1564~1635)의 무술변무(戊戌辨誣) 진주부사(陳奏副使)(1598)와 관련된 5편의 송별 기록을 대상으로, 정응태의 조선무고사건, 월사 이정귀의 무술변무를 위한 외교활동, 무술변무 진주부사와 관련된 송별 기록의 내용분석 연구이다.

명의 환곡주사(贊書主事) 정응태(丁應泰)는 임진왜란이 끝나가고 명·일 간에 정전협상이 시작되던 무렵에 조선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 참소하였다. 제 1차 참소는 선조 30년(1597) 12월 22일부터 이듬해 1월 4일까지 있었던 도산성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의 패배로 인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었지만 양국 간 외교 사절들의 노력으로 해결되었다. 제 2차 참소는 선조 31년(1598) 6월 정응태는 양호(楊鎬)가 성을 쌓아서 일본군을 막으려고 한 것에 대해 무고하였지만 조선의 강력한 대응으로 해결되었다. 제 3차 참소는 선조 31년(1598)의 9월 21일 조선을 대상으로 무고한 것인데 명의 조사자 파견, 선조의 강력한 대응, 월사 이정귀가 작성한 변무주문을 채택하여 중국에 파견된 사신들의 노력으로 잘 처리되었다.

월사 이정귀의 무술변무를 위한 외교활동에 있어서, 선조 31년(1598) 10월 21일 변무주문을 작성하여 조선을 무고한 각 사항에 대해 네 가지로 조목조목 논박하였다. 정사 이항복, 부사 이정귀, 서장관 황여일 일행은 선조 31년(1598) 11월에 한양을 떠나 선조 32년(1599) 정월 24일에 북경에 도착하였다. 월사는 정사 이항복을 따라다니며 변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응태의 무고를 해결하는데 일조하였고, 선조 32년(1599) 윤 4월 13일에 한양으로 돌아왔다.

무술변무 진주부사와 관련된 송별기록은 위장 오세창이 편집한 『근목』에는 인물과 연대가 분명하면서 문집에 수록되지 않은 김덕겸(金德謙), 김순명(金順命), 윤근수(尹根壽), 이달(李達), 황진(黃進) 5명 송별 기록이 필자의 필적과 함께 남아 있다. 시의 형식은 오언배율 10구 20행 1편, 오언율시 2편, 칠언율시 2편이다. 운자는 지(支)자 운통의 평성운자 2회, 한(寒)자 운통의 평성운자 1회, 경(庚)자 운통의 평성운자 1회, 원(元)자 운통의 평성운자 1회가 사용되었다. 시의 내용은 대부분 선조가 정응태의 무고로 심한 치욕을 당하여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고 외로운 신하인 월사 이정귀가 이를 해결하는 임무를 맡았으니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를 가슴 아파하고, 월사의 문장과 외교사령의 문체가 다채로워 정성을 다하여 외교를 펼쳐 황제가 현명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원하고 있다. 또한 그를 떠나보내는 마음들의 표현은 요동의 매서운 눈에 조심하기를 바라고, 서로 그리워하는 길이 천만리여서 달이 몇 번이나 차고 이지러질 것이며, 떠나는 먼 길과 일의 어려움을 생각하니 눈물이 흘러 갖근을 적신다고 절절하게 기록하였다.

* 본 연구는 2016년도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전공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16년 12월 1일 최초심사일: 2016년 12월 15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26일

이 연구는 향후 민간기록의 연구는 물론 서지학, 기록관리학, 역사학, 국어학계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要語: 월사, 월사 이정귀, 무술변무, 무술변무진주부사, 무술변무진주부사(1598), 송별기록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five parting records related to Wolsa Yi Jung-gui's Musulbyunmu Jinju Busa (1598) and will look into the following topics of Ding Yingtai's false charges against Joseon, Wolsa Yi Jung-gueui's diplomatic endeavors to clear Joseon from Ding's charge, and an analysis of the parting records related to Musulbyunmu Jinju busa.

Ming Dynasty's zhanhuazhushi Ding Yingtai brought false charges against Joseon three times as Imjinwaeran was ending and ceasefire negotiations between the Ming Dynasty and Japan were beginning. The first charge arose from differing points of view surrounding the defeat of Joseon-Ming allied forces in the Battle of Dosan Fortress which took place between December 22 of the 30th year of Seonjo's reign (1597) January 4 of the 31st year of Seonjo's reign (1598), but was resolved thanks to the endeavors of diplomatic envoys from both countries. Ding made his second false charge in June of the 31st year of Seonjo's reign (1598), saying Yang Hao was trying to stop Japanese forces by building a fortress, but Joseon prevented conflict by reacting strongly to the charge. The third false charge made against Joseon on September 21 on the 31st year of Seonjo's reign (1598) was resolved with the dispatch of investigators from Ming, King Seonjo's strong reaction, and the selection of Wolsa Yi Jung-gui's written documents defending Joseon's name by envoys sent to China.

Wolsa Yi Jung-gui's diplomatic work to defend Joseon involved composing a document clearing Joseon from false charges by refuting the claims one by one in four arguments. Jeongsa Yi Hangbok, Busa Yi Jung-gueui, Seojangwan Hwang Yeoil left Hanyang in November in the 31st year of Seonjo's reign and arrived in Peking on January 24 in the 32nd year of Seonjo's reign (1599). Wolsa accompanied Jeongsa Yi Hangbok and participated actively in clearing Joseon's name, contributing to settling the problem of Ding Yingtai's false charge. He returned to Hanyang on April 13 in the 32nd year of King Seonjo's reign (1599). *Keunmuk*, edited by Wichang Oh Sae-chang and containing parting records relating to the Musulbyunmu Jinju Busa, contains five farewell records by writers and time periods that are clearly known and that are not in the collections with their handwriting. The writers are Kim Deok-gyeom, Kim Soon-myung, Yoon Geun Soo, Yi Dal and Hwang Jin. Of the poems, one is a quatrain with five characters, two are pentasyllabic regulated verses and two are heptasyllabic regulated verses. Of the rhyming characters which are in the neutral tone, ji is used twice, han once, gyeong once, and won once. The greater part of the poems express sadness over Wolsa Yi Jung-gui's lonely and difficult task in taking care of Ding Yingtai's false charge which so humiliated Seonjo, all in spite of Wolsa Yi's poor health. Nevertheless, the poems also wish that Wolsa, with his well-turned verse and diverse diplomatic language, will induce the Emperor into resolving the conflict wisely. On parting with Wolsa, they record at length for Yi to be careful in the snow, that the moon will grow full and wane several times before he returns from the ten million ri journey, and that they shed tears over their hat strings thinking of Yi's long journey and the difficulty of the task.

This study will be used in the basic future studies of private records as well as in those of bibliography, record management, history and Korean language.

Key words: Wolsa, Wolsa Yi Jung-gui, Musulbyunmu, Musulbyunmu Jinju Busa, Musunbyunmu Jinjubusa (1598), Parting Records

1. 서론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 1564~1635)¹⁾는 선조~인조시기에 46년간 벼슬 길에서 육경(六卿)을 두루 역임하였고, 9번의 예조판서와 2번의 대제학을 맡았으며, 문장력이 탁월하여 조선조 4대 문장가²⁾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월사는 임진왜란을 전후해 조선을 중심으로 명과 일본 사이에서 국가의 명운을 흐르는 혼란의 정국을 대응하여 정치·외교사에 찬란한 족적을 남겼다. 특히 그는 사대와 교린 관련외교문서에 탁월하여 네 차례나 중국에 사신을 가서 선조~광해군 시기 조선을 둘러싼 긴박한 사안들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명의 찬획주사(贊畫主事) 정응태(丁應泰)는 임진왜란이 끝나가고 명·일 간에 정전협상이 시작되던 무렵에 조선에 대해서 세 가지 사안으로 세 차례에 걸쳐 참소하였다. 첫째, 선조 31년(1598) 6월 4일 조선군의 최고지휘관이었던 경리(經理) 양호(楊鎬)와 명장들이 선조 30년(1597) 12월 22일부터 선조 31년(1598) 1월 4일까지 이어졌던 도산성(島山城)³⁾ 전투에 관해 명 조정에 허위로 보고하였다고 참소하였다. 둘째, 선조 31년(1598) 6월 양호가 조선으로 하여금 성을 쌓게 하였는데 조선이 이에 의지하여 배반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참소하였다. 셋째, 조선이 양호를 구하려고 불만을 품고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를 근거로 조선이 일본과 통교하였다는 이유로 참소하였다.⁴⁾

월사는 제3차 참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선조 31년(1598) 11월 진주정사(陳奏正使)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서장관(書狀官) 해월(海月) 황여일(黃汝一)과

1)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 1564~1635)의 삶과 행적에 대해서는 강순애, “월사 이정귀의 세자책봉 추정정사와 관련된 송별 기록 연구,” 『書誌學研究』 第67輯(2016. 9), 83-88에 자세히 다루었다.

2) 조선조 4대 문장가는 ‘월상계택(月象谿澤)’이라고 하는데,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 1564~1635), 상촌(象村) 신훈(申欽, 1566~1628), 계곡(谿谷) 장유(張維, 1587~1638),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을 일컫는다.

3) 도산성(島山城)은 현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공원 3길 54 일원에 위치한 울산왜성(蔚山倭城, 현 학성공원,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7호)의 옛 이름이다.

4) 허지은, “丁應泰의 ‘朝鮮誣告事件’을 통해본 조·명관계,” 『史學研究』 76권 1호(2004), 170.

함께 진주부사로 파견되어 『무술변무주(戊戌辨誣奏)』를 지어 정응태의 조선에 대한 무고를 해결하였다.

이 글에 발표되는 자료는 선조 31년(1598) 11월에 정응태의 3차 무고를 해결하기 위해 북경으로 떠날 때 월사가 받은 서간으로 원본 필적과 함께 남아 있는 5편이다. 그의 사행과 관련된 송별 시들은 거의 남아 있는 자료들이 없다. 현재 남아있는 무술변무(戊戌辨誣) 진주부사와 관련된 송별 기록은 당시 월사 이정귀와 관련된 사람들의 글이어서 이의 내용분석을 통해 당시의 여러 정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위에서 언급한 5편의 송별 기록을 대상으로 하여 정응태의 조선무고사건, 월사 이정귀의 무술변무를 위한 외교활동, 무술변무 진주부사와 관련된 송별 기록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향후 민간기록의 연구는 물론 서지학, 기록관리학, 역사학, 국어학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2. 정응태의 조선무고사건

명의 찬획주사 정응태는 임진왜란이 끝나가고 명·일 간에 정전협상이 시작되던 무렵에 조선에 대해서 세 가지 사안으로 세 차례에 걸쳐 참조하였다. 이에 대해 『선조실록(宣祖實錄)』,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제 1차 참조사건

제 1차 참조사건과 관련된 경리 양호, 도산성 전투 및 사건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산성 전투는 정유재란 때인 선조 30년(1597) 12월 22일부터 선조 31년(1598)

1월 4일까지 권율(權慄), 마귀(麻貴) 등이 울산 도산성에서 왜군과 부딪친 싸움이다.

『선조실록』 선조 30년(1597) 12월 30일 기사에 의하면, “마 제독(麻提督)의 차관(差官)이 첩서(捷書)를 가지고 울산에서 오니 상이 별전(別殿)에서 접견하였다. …중략… 차관이 아뢰기를, 23일 사시(巳時)에 천병이 청정(加藤清正)의 별영(別營)을 무너뜨렸는데, 그날 밤 청정이 서생포(西生浦)에서 울산(蔚山)으로 들어왔습니다. 천병이 바야흐로 도산(島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데 적군은 높은 둔덕에 있고 아군은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상자가 꼭 많았습니다. 그러나 23~24일의 싸움에서 마(麻)·주(周) 두 천총(千總)만이 탄환을 맞고 죽었을 뿐, 죽은 군병은 30명도 안됩니다. 수로(水路)를 따라 온 왜적들은 천병에게 쫓긴 나머지 배가 뒤집혀 물에 빠져 죽은 자가 수천 명이나 되었습니다.”⁵⁾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선조 31년(1598) 1월 1일 기사에 의하면, “이 부총(李副總)의 【이여매(李如梅)】 접반사(接伴使) 이덕열(李德悅)이 치계하였다. 본월 22일 밤에 대군(大軍)이 일제히 출동하였는데, 이 부총이 선봉으로 나아갔습니다. 23일 오시(午時)에 선봉군이 적진에서 20리 되는 곳에서 왜적과 만났는데 중국군이 용맹을 떨쳐 학익진(鶴翼陣)으로 습격하여 왜적 4백여 급을 베었습니다. 24일 새벽녘에 성 아래로 진격하여 다가가서 여러 종류의 화포(火炮)를 한꺼번에 발사하니,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연기와 불꽃이 허공에 솟구쳤습니다. 성 안에 있는 왜적들의 집에서는 일시에 불길기 치솟았고 북풍이 크게 불어 불길기 덮치자 적의 무리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토굴 속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모든 군사가 성을 함락시키고 진격하여 토굴을 공격했으나 토굴이 겹겹으로 되어 있고 석축(石築)이 견고하고 험하기가 비길 데 없어 격파하지 못했습니다. 시험 삼아 대완구(大碗口)를 쏘아보았으나 산비탈이 가파르고 높아서 포석(砲石)이 장애를 받아 곧바로 쓸 수가 없어 종일토록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⁶⁾라고 하였다.

5) 『선조실록(宣祖實錄)』 95권, 선조 30년 12월 30일 병술 2번째 기사.

“麻提督差官，持捷書自蔚山至，上接見于別殿。… 差官曰 二十三日巳時，天兵破清正別營。其夜清正自西生來入蔚山。天兵方圍島山攻打，而賊在高阜，我軍在卑處，故死傷頗多。二十三四日之戰，只麻、周兩千總，中丸而死，軍兵死者不滿三十人。倭賊之從水路來者，爲天兵所趕，翻船滄死者數千云。…”

6) 『선조실록(宣祖實錄)』 96권, 선조 31년 1월 1일 정해 10번째 기사.

“李副總【如梅】接伴使李德悅馳啓曰 本月二十二日夜，大軍齊發，副總最先行。二十三日午時，先鋒軍遇賊於距賊陣二十里之地。唐兵奮勇，以鶴翼掩擊，斬賊四百餘級。二十四日黎明，進薄城下，各樣火炮俱發，轟天震地，烟焰沸空。城中倭屋，一時火起，北風大起，風火所被，賊衆披靡，走入土窟。諸軍陷城，進攻土窟，土窟重重，石築堅險無比，不得攻破。試放大碗口，則山坂峻高，砲石有礙，不能直衝，終日不拔云。”

위의 두 기사에 의하면, 선조 30년(1597) 12월 22일에는 대군이 진군하였다. 23일, 24일에 명나라의 마귀(麻貴), 도원수 권율(權慄), 좌병사(左兵使) 고언백(高彦伯), 우병사(右兵使) 정기룡(鄭起龍)과 함께 울산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어 대승하였으므로 일본군은 도산성에 응거하였다.

『선조실록』 선조 31년(1598) 1월 4일 기사에 의하면, “중국군과 아군이 왜적의 내성(內城)을 공격했는데 성이 매우 견고하여 대포로도 격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적들이 성 위에 있는 구멍을 통해 조총을 많이 쏘아 중국군과 아군이 많은 손상을 입자 경리(經理)가 징을 울려 공격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진유격(陳遊擊)이 밤을 틈타 앞장서서 올라가 성을 공격하다가 오른쪽 어깨에 탄환을 맞았는데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어젯밤 수레로 경주(慶州)로 갔다.”⁷⁾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선조 31년(1598) 1월 8일 기사에 의하면, “정유년 12월 29일 청첩한 경리의 접반사 이덕형과 도원수 권율의 치계에, …경리가 중국군과 아군에게 애패(挨牌)와 풀단[草束]을 가지고 적탄을 막으면서 전진하도록 하여 성에 다가가 불을 놓으려고 하였는데, 적의 총탄이 빗발치듯하여 겨우 목책(木柵) 밖에까지 진격하고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각군(各軍)이 다시 전진하고자 했으나 왜적이 화포를 쏘므로 제군(諸軍)이 위축되어 물러났습니다. …”⁸⁾라고 하였다.

위의 두 기사는 선조 30년(1597) 12월 25일과 29일에 일어난 전쟁 상황을 알려 주고 있다. 25일에는 조·명 연합군이 내성을 공격하였지만 왜적들이 성 위에서 조총을 많이 쏘아 손상을 입고 경리 양호가 공격을 멈추고 진유격이 탄환을 맞아 경주로 가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29일에는 조·명 연합군이 성에 다가가 불을 놓으려고 하였지만 적의 총탄이 빗발쳐서 목책 밖에까지 진격을 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7) 『선조실록(宣祖實錄)』 96권, 선조 31년 1월 4일 경인 2번째 기사.

“柳成龍馳啓曰 本月二十五日, 軍官具懷愼回自蔚山。天兵與我軍, 攻打倭賊內城, 城甚堅險, 大砲不能撞破。賊從城上孔穴, 多放鳥銃, 天兵、我軍頗有損傷, 經理鳴金止攻。陳遊擊乘夜, 先登攻城, 右臂中丸, 以調病事, 昨昏輿出慶州 …”

8) 『선조실록(宣祖實錄)』 96권, 선조 31년 1월 8일 갑오 2번째 기사.

“丁酉十二月二十九日, 成貼經理接伴使李德馨、都元帥權慄馳啓。… 經理令天兵及我兵, 持挨牌及草束, 遮擁前進, 欲薄城放火, 而賊窟銃丸如雨, 纔進木柵外, 不得更進。…”

『선조실록』 선조 31년(1598) 1월 9일 기사에 의하면, “이날 밤 2경에 분호조 참의(分戶曹參議) 이시발(李時發)이 충주(忠州)에서 치계하였다. 오늘 계진 순무 아문(薊鎭巡撫衙門)의 차관(差官)이 남쪽에서 와서 오경력(吳經歷)에게 ‘천병(天兵)이 도산(島山)을 포위한 지 10일이 지나도 격파하지 못했는데 구원을 온 왜선들이 많이 와서 정박했기 때문에 부득이 4일 포위를 풀고 철수하여 경주로 돌아왔다.’ 하였습니다.”⁹⁾라고 하였다.

이 싸움의 결과는 선조 31년(1598) 1월 4일 조·명 연합군이 10일이 지나도 격파를 못하게 되고 구원을 온 일본의 왜선들이 많이 와서 정박했기 때문에 포위를 풀고 경주로 철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전쟁은 위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투 초반에는 조명 연합군이 우세하였지만, 도산성이 매우 견고하고 일본의 조총과 원군의 지원으로 패하였다. 이후 도산성 전투와 관련된 서훈(敍勳) 문제로 명장들의 불만은 계속되었고 명장들의 접반사로 전투에 참가했던 조선 측 관리들의 보고를 통해 당시의 전투 상황과 명군 측의 대패사실이 명백해지게 되었다.¹⁰⁾

이 사건의 결과는 명의 주전과와 강화과의 대립으로 복잡하게 휘말렸다. 이 전투에 참여했던 유격 진인중(陳寅中)과 주승(周陞)은 경리 양호에게 죄를 언자 찬획주사 정응태에게 양호를 참조하였는데, 『재조번방지』 권5를 참조하면, “도산 싸움에 물자와 군량이며 기계를 내버린 것이 헤아릴 수가 없고, 중국 군사가 죽은 자도 매우 많아서 군중에 데리고 온 잡역부와 장사치들로 빠진 수효를 채워 놓았으며, 군량과 은을 떼어먹고 각 영에 분배해 주지 않아서 군사와 말이 식량이 떨어진 지 여러 달이 되었다.”¹¹⁾고 하였다.

정응태는 주승의 말을 듣고 장차 탄핵하려고 일부러 경리를 찾았는데, 경리는

9) 『선조실록(宣祖實錄)』 96권, 선조 31년 1월 9일 을미 3번째 기사.

“是夜二更，分戶曹參議李時發，在忠州馳啓曰 當日有薊鎭巡撫衙門差官，自南邊來過，謂吳經歷曰 ‘天兵圍島山，十日不得破，而求援倭船，多數來泊，故不得已初四日解圍撤兵，致到慶州’ 云。”

10) 허지은(2004), 176.

11) 申晙,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권5.

“… 島山之戰，得罪經理，心銜之。讚於應泰曰，島山之役，遺棄資糧器械無算，天兵死者甚衆，以軍中帶來雜役及買賣人等，頂補其闕，乾沒糧銀，不分給各營，軍馬絕糧累月，…”

응태가 자기를 엿보려 하는 줄을 모르고 閣老(각로) 장위(張位)가 보내 준 자그마한 문서를 보였으니, 그 가운데의 말은, “도산 싸움에 대해 경리의 공적이 많음을 훌륭하게 치하하고 각로가 비밀히 후원해서 포상하는 은총을 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었다. 응태는 물러 나와서 상소하여 경리가 황제를 속이고 일을 그르친 20여 가지의 일과 마귀(麻貴)·이여매(李如梅) 등이 재물을 탐내어 싸움에 지게 되고 난을 일으키게 한 등의 죄와 아울러 장위(張位)가 당(黨)을 두둔하고 위를 속인 등의 일까지 탄핵하여 아뢰었다.¹²⁾

이때 조정에서 조선의 입장을 표명한 진주문을 작성하여 선조 31년(1598) 7월 1일 배신(陪臣) 최천건(崔天健)과 서장관 경섭(慶暹) 등을 보내서 도산 전투의 시말을 갖추어 아뢰고 경리가 무함 당한 것을 변명하게 되었다.¹³⁾ 그해 7월 6일에 흠차 감찰어사가 경리의 처리, 군량, 세자의 군영 진출에 대해 자문을 보내 왔는데, “소본(疏本)을 갖추어 황상께 올렸는데, 그 내용은 대략 국왕이 보내온 자문과 일치하며 나아가 동정(東征)을 절대로 중지해서는 안 되며 군량을 감하여서도 안 된다는 뜻을 더욱 간곡히 진술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¹⁴⁾

2.2 제 2차 참소사건

제 2차 참소사건은 선조 31년(1598) 6월 양호가 조선으로 하여금 성을 쌓게 하였는데 조선이 이에 의지하여 배반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참소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申晷, 『재조변방지(再造藩邦志)』 권5.

“… 應泰既聽陰言, 將參之故詣經理, 經理不知應泰之欲隄已也。出張閣老位所貽小帖示之。小帖中言。島山之戰, 盛推經理功多。閣老欲爲奧援。俾得喪寵云云。應泰退而構疏。參奏經理欺罔債事二十餘事。麻貴李如梅等。貪猾喪師釀亂等罪。并逮張位護黨罔上等事。…”

13) 『선조실록(宣祖實錄)』 102권, 선조 31년 7월 1일 갑신 2번째 기사.

“… 陳奏使崔天健、書狀官慶暹拜辭。…”

14) 『선조실록(宣祖實錄)』 102권, 선조 31년 7월 6일 기축 8번째 기사.

“… 業具小疏, 籛叩 九閭, 其中辭意大略, 與賢王來咨脗合, 至於東征之必不可罷, 糧餉之必不可減, 尤惓惓焉。…”

『선조실록』 선조 31년(1598) 6월 23일 기사에 의하면, “... 대신들과 함께 양경리가 참소당한 사정과 중국에 보낼 자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선조가 이르기를 ‘양호(楊鎬)가 조선을 움직여 성을 쌓았으니, 뒷날 이 성을 의지하여 배반하지 않으리란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였으니, 이러한 말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참으로 천하에 더없이 원통한 일이다. ...”¹⁵⁾라고 하였다.

『재조변방지』 권5의 월사 이정귀의 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한 모퉁이의 탄환처럼 작은 나라로 삼면으로 적을 받게 되어, 그 제방의 설비와 보장하는 기구를 나라가 생길 이래로 본디 조심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태조는 고향제 때 와서 조서를 받게 내리시와 성을 쌓아 왜적을 막아내는 도리를 효유하시는데 있어 가르쳐 경계하고 권하여 알려주심이 정녕하실 뿐 아니오라 조서의 뜻이 삼엄하심이 사람의 귀와 눈에 남아 있어 우리나라의 금석(金石) 같은 법전이 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루 같았사옵니다. 드디어 서울 도성 및 해안 지방에 모두 성을 쌓고 뾰았으니, 성인께서 교훈을 남기시어 제도를 창설케 하시는 뜻은 진실로 왕자(王者)를 모두 똑같이 보시는 어짊으로, 그 재난이 생기기 전에 준비하라는 경계가 지극히 깊으시고 또한 원대하셨습니다. ...[중략]... 무신 양호가 깊은 피와 원대한 생각으로 3로로 큰 진영을 갈라 정하고 또 전라도와 경상도의 적과 가까운 지방의 험준한 곳에 의지하여 성을 쌓아서 진을 치고 머물면서 막아 지키는 곳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이는 뒷일을 잘 처리하려는 계책이 아닌 것이 없었으나 우리나라가 특히 인력이 약하고 재력이 동이 나서 즉시 받들어 행하지 못한 것이 한이었는데, 이 한 가지 일로 인하여 죄가 무신에게 미치고, 또 우리나라가 의심을 받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¹⁶⁾라고 하였다.

『재조변방지』 권5에 의하면, “7월(14일)에 찬획주사 정응태가 또 글을 올려 우리나라에서 성을 쌓은 여러 일을 무고하였는데, 극히 흉악하였으므로 조정에서 좌의정 이원익(李元翼)과 참판 허성(許箴)을 보내어 글을 올려 변무(辨誣)하게 하고, 겸하여 양경리(楊經理)도 구원하였다.”¹⁷⁾고 하였다.

15) 『선조실록(宣祖實錄)』 101권, 선조 31년 6월 23일 병자 2번째 기사.

“... 又言 ‘楊鎬動朝鮮築城, 安知他日倚此而爲叛也?’ 此等說話何如乎? 誠極天下之冤痛也. ...”

16) 申晷, 『재조변방지(再造藩邦志)』 권5.

“... 查照小邦以一隅彈丸, 三面受敵, 其隄防之備, 保障之具, 自有國以來, 固未嘗不謹, 而至我太祖高皇帝, 明降璽書, 諭之以築城禦倭之道, 教戒勸誨, 不啻丁寧, 詔旨森嚴, 在人耳目, 爲東方金石之典, 至于今如一日, 遂於京都及沿海地方, 俱設城壕, 聖人垂訓創制之義, 誠王者一視之仁, 而其綢繆陰雨之戒, 至深且遠矣. ... 故撫臣楊鎬深思遠圖, 派定三路大營, 且欲於全慶近賊地方, 據險城築, 以爲屯筭防守之地, 此無非經營善後之計, 而小邦特以力綿財竭, 未卽奉行爲恨, 曾不料因此一事, 罪及撫臣, 而又致疑於小邦也. ...”

17) 申晷, 『재조변방지(再造藩邦志)』 권5.

“... 七月贊畫主事丁應泰, 又上本誣我國築城諸事, 極其凶慘, 朝廷遣左議政李元翼參判

『선조실록』 선조 31년(1598) 7월 15일 기사에는 “조정에서 좌의정 이원익(李元翼)과 참판 허성(許箴)을 다시 진주사로 파견하는 것에 대한 예판 심회수의 반대도 있었지만 선조는 이미 결정되어 반복할 수 없다.”¹⁸⁾고 했다.

위의 기사를 종합하면, 정응태는 양호(楊鎬)가 전라도와 경상도의 적과 가까운 지방의 험준한 곳에 의지하여 성을 쌓아서 진을 치고 머물면서 일본군을 막아 지키려 한 것에 대해 흉악하게 무고하였고, 선조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선조 31년(1598) 6월 23일 지시를 내렸다. 7월 14일에 2차 진주사로 좌의정 이원익(李元翼)과 참판 허성(許箴)이 결정되었으며 월사 이정귀가 작성한 주문이 채택되었다. 최천건 일행이 제 1차 참소사건의 사행으로 7월 1일에 파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에 대해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선조의 의지로 강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2.3 제 3차 참소사건

제 3차 참소사건은 조선이 양호를 구하려고 한 데 대해 정응태가 불만을 품고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를 근거로 조선이 일본과 통교하였다는 이유로 일으킨 것이다.

『선조수정실록』 선조 31년(1598) 9월 1일 기사에 의하면, “... 찬획주사 정응태가 양호와 사이가 나빠 주문을 올려 탄핵하니, 우리나라에서는 연달아 최천건(崔天健)과 이원익(李元翼) 등을 보내 주문을 올려 변호하고, 그대로 머물러 일을 주관하게 하기를 요청하였는데, 응태가 이를 서운하게 여겨 마침내 치주(馳奏)하였다.”¹⁹⁾라고 하였다.

許箴。賈奏辨誣。兼救楊經理 ….”

18) 『선조실록(宣祖實錄)』 102권, 선조 31년 7월 15일 무술 1번째 기사.

“... 戊戌/禮曹判書沈喜壽上筭 … 專差崔天健, 申奏又足矣。今何必大臣之赴愬哉? … 傳曰: “省筭, 具見爲國盡誠, 有懷必達之義。但筭辭似屬未安。行期已定, 【李元翼陳奏之行已定】不敢勉副。…”

19)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32권, 선조 31년 9월 1일 계미 1번째 기사.

“贊畫主事丁應泰與楊鎬有隙, 奏劾之, 我國連遣崔天健、李元翼等, 上奏陳辨, 乞令仍留

『선조실록』 선조 31년(1598) 9월 21일 찬획주사 정응태의 주본(奏本)에 의하면, “... 만력(萬曆) 20년에 마침내 그들 나라에 세거(世居)하고 있던 왜호(倭戶)로 하여금 여러 섬의 왜노(倭奴)를 불러들여 군사를 일으켜 함께 중국을 침범하여 요하(遼河) 이동 지방을 탈취해 고구려(高句麗) 옛 강토를 회복하려 하였다. ...『해동기략(海東紀略)』은 바로 조선과 왜가 우호적으로 교체한 사실을 적은 책이었습니다. ...또 참람하게 태조(太祖)·세조(世祖)·열조(列祖)·성상(聖上)이란 칭호를 사용하여 감히 천조에서 조(祖)를 칭하는 것과 같이 하였으니 저들이 2백 년 동안 공순한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조선 국왕은 【성휘(姓諱)】 백성들에게 포학하고 주색에 빠져 감히 왜를 유인하여 침범해 오게 함으로써 천조를 우롱하고, 다시 양호(楊鎬)와 당을 맺어 천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²⁰⁾라고 하였다.

위의 선조 31년(1598)의 9월 21일 정응태의 탄핵주문으로 인하여 명에서는 만세덕(萬世德)을 조선에 보내 경리(經理)를 맡게 하였고, 급사(給事) 서관란(徐觀瀾)으로 하여금 다시 명백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선조는 9월 21일 당일 이로 인한 충격으로 정원에 비망기를 내려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천자의 성지가 내리지 않아 죄를 기다리고 있으니 일체의 정무를 세자에게 맡기고 명나라 장수의 접대도 세자가 직접 하도록 지시하였다.²¹⁾ 이러한 정무의 중단은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계속되었다. 선조 31년(1598)의 10월 21일에 병조참지월사 이정귀가 작성한 변무주문이 완성되었다.²²⁾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사에 벼슬을 병조판서에서 우의정으로 승진시켜 백사 이항복을, 부사에 벼슬을 병조참지(參知)에서 공조참관으로 승차하여 월사 이정귀를, 서장관(書狀官)에 황여일을 임명하였다.”²³⁾

管事，應泰嘽之，遂馳奏曰 …”

20) 『선조실록(宣祖實錄)』 104권, 선조 31년 9월 21일 계묘 3번째 기사.

“... 萬曆二十年，遂令彼國世居倭戶，往招諸島倭奴，起兵同犯天朝，奪取遼河以東，恢復高麗舊土。... 書名『海東紀略』，乃朝鮮與倭交好事實也。... 又僭稱太祖、世祖，列祖、聖上，敢與天朝之稱祖、尊上等，彼二百年恭順之義謂何 ... 今朝鮮國王【姓諱】暴虐臣民，沈湎酒色，乃敢誘倭入犯，愚弄天朝，復與楊鎬結黨，朋欺天子 ...”

21) 『선조실록(宣祖實錄)』 104권 선조31년 9월 21일 계묘 4번째 기사.

22) 『선조실록(宣祖實錄)』 105권, 선조 31년 10월 21일 계유 2번째 기사

23) 李廷龜, 『월사집(月沙集)』 卷2, 『무술조천록(戊戌朝天錄)』 (한국고전번역원, 1999), 19. “... 朝廷將差出辨誣使，必以相臣爲上价。弼雲李公恒福以兵曹判書，陞拜右議政。爲陳奏上使。余以參知，特命加資爲副使。黃汝一爲書狀官 ...”

3. 월사 이정귀의 무술변무를 위한 외교활동

월사 이정귀가 위에서 언급한 정응태의 세 차례의 참소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진주부사로 중국에 파견된 것은 제 3차 참소사건에 대한 무술변무를 위해서였다.

선조 31년(1598) 명의 병부주사(兵部主事) 정응태는 참소대상을 양호에서 조선으로 바꾸어 황제에게 주본(奏本)을 올려 탄핵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 선조 31년(1598) 9월 21일 찬회주사 정응태 주본의 참소 내용과 같은 해 10월 21일 월사가 변무주문에 의거해서 각 사항에 대해 논박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응태가 조선이 요동의 협강(夾江)과 중주(中洲)에 대해 소유권 분쟁을 일으켰고, 요하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다고 한 것에 대해, 월사는 협강과 중주는 모두 황무지로 만들고 비석을 세워 경작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하였고, 요동지역과 송사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²⁴⁾ 그리고 삼포(三浦) 왜호(倭戶)²⁵⁾는 중종 5년(1510)의 난 이후 조선에서 거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임진왜란은 조선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정명가도(征明假道)를 거절하여 일어난 것임을 강조하였다.²⁶⁾

둘째, 정응태는 신숙주가 저술한 『해동기략』에 근거하여 조선이 일본의 연호를 크게 쓰고 중국의 연호를 나누어 썼다고 하고, 조선이 일본에 조공을 바쳤다고

24) 『선조실록(宣祖實錄)』 105권, 선조 31년 10월 21일 계유 2번째 기사. 월사 이정귀 주문. “... 若所謂夾江、中洲者，與小邦義州，只隔一水，水合之後，漫爲平地，彼此人民，交通買賣，恐惹起事端，故嘉靖年間，移咨都司，或奏聞朝廷，將冒耕等處，盡行拋荒，至於立碑禁約，事之顛末，不過如此。... 小邦不曾與遼民爭訟，而乃云爭訟，都司不曾以此事斷案，而却說斷案，言之罔極，至於是乎? ...”

25) 대마도의 왜적들이 처음에는 제포(齊浦)·부산포(釜山浦)·염포(鹽浦) 등 지역에 우거(寓居)하면서 교역(交易)하고 고기잡이를 요청하므로 조선이 그곳에 살도록 허락하여 그들이금 왜적의 상황을 염담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삼포(三浦)에 왜호(倭戶)가 있다고 말하게 된 것이다.

26) 『선조실록(宣祖實錄)』 105권, 선조 31년 10월 21일 계유 2번째 기사. 월사 이정귀 주문. “... 辛卯之春，賊酋秀吉，篡君稔惡，陰懷異圖，遣使致書，以探虛實，脅以同逆，要以假道。臣拒以大義，斥絕其使，即具奏馳聞，事跡昭然，今不必煩辨。寧有引賊入內，自覆其國，而爭地於君父之邦者哉? ...”

한 것에 대해, 월사는 “『해동기략』은 일본책에 주석을 붙인 것이라 주(註)만 덧붙인 것이라 그 나라가 참칭(僭稱)한 연호 아래에 천조(天朝)의 연호를 나누어 주석으로 써서, 일본이 참칭한 모년(某年)은 천조 건원(建元)의 몇 년이라는 것을 표시한 것이고, 일본 국왕인 관백(關白)에게는 모두 죽었다[死]라고 썼으며, 서문에는 중국의 연호인 성화(成化)를 사용하였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²⁷⁾ 또한 일본이 조선에 와서 조공했다는 사실에 대해, “피차(彼此) 서로 조희했다고 말하고, 또 이미 쌀을 주었다고 했는데 지금 조선 사람이 공물을 바쳤다고 말하여 자기 멋대로 억설을 만들어 실정을 엄폐(掩蔽)하고 죄를 더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²⁸⁾

셋째, 정응태가 조선이 태조·세조·열조(列祖)의 성상(聖上)을 참칭(僭稱)하여 감히 천조의 칭조(稱祖)·존상(尊上)과 같이 하였으니, 저들이 2백 년간 공순(恭順)한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월사는 선왕들의 묘호를 조(祖)라고 호칭한 일은 신라와 고려 시대부터 이러한 잘못이 있었으니, 대개 신민(臣民)들이 전일의 잘못을 승습(承襲)하여 외람되게 존칭을 더하고 서로 전수하며 고칠 줄 모른 것을 인정하였다. 다만 대명률(大明律), 대통력(大統曆), 복색(服色), 예(禮)와 조선에서 행하는 영조의(迎詔儀), 배표례(拜表禮), 망궐례(望闕禮)는 천위(天威)를 대하듯이 하였고, 공사간(公私間)의 간독(簡牘)까지도 모두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는 것을 상용 격식으로 익혀왔으니, 이는 떳떳한 법이고 바른 의리”²⁹⁾라고

27) 『선조실록(宣祖實錄)』 105권, 선조 31년 10월 21일 계유 2번째 기사. 월사 이정귀 주문. “… 蓋此書只因其國所記而添注, 故其國僭稱年號之下, 分註天朝年號, 以標日本僭稱之某年, 爲天朝建元之幾年, 如曰嘉吉元年, 卽正統六年云者是也. … 況其國王關白, 皆書死, 尊奉者, 果若是乎? … 若曰小邦奉日本年號, 則序文之末, 何以揭天朝成化紀元乎? …”

28) 『선조실록(宣祖實錄)』 105권, 선조 31년 10월 21일 계유 2번째 기사. 월사 이정귀 주문. “… 且書中既稱來朝, 而今乃謂彼此相朝, 書中既云賜米, 而今乃謂鮮人納貢. 自做臆說, 以掩其實, 欲加之罪, 其無辭乎? …”

29) 『선조실록(宣祖實錄)』 105권, 선조 31년 10월 21일 계유 2번째 기사. 월사 이정귀 주문. “… 至於稱祖一事, … 而獨其稱號, 則自新羅、高麗, 有此謬誤. 蓋以臣民, 襲舊承訛, 猥加尊稱, 相沿而不知改. … 小邦自先臣以來, 血心事上, 盡禮盡誠, 律用《大明律》, 曆用《大統曆》, 服色、禮義, 無不慕尙, 而天使之來, 有迎詔儀; 陪臣之去, 有拜表禮; 正、至、聖節, 有望闕之禮, 率皆虔心精白, 肅敬將事, 一如對越天威, 以至各樣文書、公私簡牘, 皆奉年號, 習爲恆式. 此蓋常經通義, …”

하였다.

넷째, 정응태가 양호와 결탁하여 천자를 속였다는 것에 대해, 월사는 “양호가 오랫동안 소방에 있으면서 일심(一心)으로 왜적을 토벌했고 소방의 사람들도 바야흐로 그를 의지하여 공을 이루려 하는데, 하루아침에 모함을 당하여 변방의 기무(機務)를 그르치게 되면 문득 대사(大事)가 잘못되고 다른 의논이 혹 틈을 탈까 염려하여 그에게 전적으로 위임시켜 천토(天討)를 끝내게 해주길 간절히 청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신의 구구한 소원이었고 결코 다른 뜻은 없었다.”³⁰⁾고 해명하였다.

백사 이항복, 월사 이정귀, 황여일 일행은 기존의 사행길인 한성(漢城) → 고양(高陽) → 과주(坡州) → 개성(開城) → 황주(黃州) → 평양(平壤) → 정주(定州) → 곽산(郭山) → 철산(鐵山) → 용천(龍川) → 의주(義州) → 구련성(九連城) → 책문(柵門) → 봉황성(鳳凰城) → 통원보(通遠堡) → 요동(遼東) → 십리하(十里河) → 십양(瀋陽) → 광녕(廣寧) → 대릉하(大凌河) → 금주(錦州) → 영원(寧遠) → 조장역(曹庄驛) → 산해관(山海關) → 무령현(撫寧縣) → 영평부(永平府) → 풍운현(豐潤縣) → 옥전현(玉田縣) → 계주(薊州) → 통주(通州)를 거쳐 북경으로 갔다.

월사의 『무술조천록(戊戌朝天錄)』에 의하면, 선조 31년(1598) 11월에 한양을 떠나 동짓날(冬至)에 의주에 도착하고, 소한(小寒)에 진이보(鎭夷堡)를 지났고, 납일(臘日)에 해주위(海州衛)를 지났으며, 선달그믐 나흘 전에 광녕(廣寧)을 지나갔다.³¹⁾ 선조 32년(1599) 정월 16일에 풍운성(豐潤城)에 머물렀다.³²⁾ 정월 24일에 북경에 도착하였다.³³⁾

30) 『선조실록(宣祖實錄)』 105권, 선조 31년 10월 21일 계유 2번째 기사. 월사 이정귀 주문. “... 然臣之意, 則只以楊鎬久在小邦, 一心討賊, 小邦之人, 方倚此而成功, 一朝受枉, 邊機將誤, 却恐大事漸跌, 他議或間, 懇乞專任, 以畢天討. 是臣區區, 保無他意. ...”

31) 李廷龜, 『월사집(月沙集)』 卷2, 『무술조천록(戊戌朝天錄)』 卷상 (한국고전번역원, 1999), 19-25. “... 十一月辭朝 ... 冬至日冬至日有感. 錄上弼雲相公. 兼示海月公. 二首. ... 次小寒日過鎭夷堡韻 ... 次守歲前四日過廣寧韻 ...”

32) 李廷龜, 『월사집(月沙集)』 卷3, 『무술조천록(戊戌朝天錄)』 卷하 (한국고전번역원, 1999), 30. “... 正月十六夜 寓豐潤城下獨居 ...”

33) 申晷,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권6. “... 我國辨誣使臣李恒福等. 乃於二十四日抵北京 ...”

선조 32년(1599) 북경에 이르러 상주하고 구경(九卿), 육과(六科), 십삼도(十三道), 육부(六府)의 아문에 정문(呈文)을 짓고, 역관들은 이것을 39권으로 나누어 필사하였다. 월사는 정사 이항복을 따라다니며 변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응태의 무고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였다.³⁴⁾

월사 일행은 형부상서(刑部尙書) 겸(兼) 병부(兵部) 소대형(蕭大亨)과 내각의 장관으로 있었던 중극전 태학사 심일관(沈一貫)에 먼저 정문을 올려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각 관청에 정문 및 주문을 올렸으며, 또한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오례의(五禮儀)』·『여지승람(輿地勝覽)』 등의 책을 드려 보충자료로 참고하도록 하였다.³⁵⁾ 명의 조정에서는 병부의 소대형, 공부상서 양일괴(楊一魁), 예부 좌시랑 여계등(餘繼登), 도찰원 좌도어사 온순(溫純) 등이 이 사건은 조사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조사할 것도 없다고 결론지었다.³⁶⁾

월사 일행은 선조 32년(1599) 윤 4월 13일에 변무활동의 성공을 보고하였고, 선조의 “지극히 원통한 일을 경들 덕택에 씻어버리게 되었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는 치하와 함께 대장정이 마무리되었다.³⁷⁾

34) 김우진, “月沙 李廷龜의 對明 외교활동 - 선조와 광해군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1권(2012), 123-126.

35) 申晷, 『재조변방지(再造藩邦志)』 권6.

“…二十八日將見。…刑部尙書蕭大亨依舊兼署兵部事。中樞殿大學士沈一貫在閣。是日恒福預構呈文一本。…恒福等具言其故。乃以呈文進。…恒福辭退後三日。恒福等又將詣禮部見堂。聞是日各司坐堂。欲先詣科道衙門呈文入關。始知多官爲本國事。會議于東關。…二十餘員皆會關中。…隨其衙門。一一呈文。…翌日又以海東諸國記五禮儀輿地勝覽等書論辨不已。…”

36) 申晷, 『재조변방지(再造藩邦志)』 권6.

“…兵部等衙門尙書官蕭大亨等謹題爲。…工部尙書楊一魁等。…禮部左侍郎余繼登等看得。…此不必勸。亦無可勸者。…都察院左都御史溫純等揭稱。…”

37) 『선조실록(宣祖實錄)』 112권, 선조 32년 윤4월 13일 신묘 4번째 기사.

“…陳奏使右議政李恒福、副使同知中樞府事李廷龜復命，上御別殿引見之。…恒福等起出，上曰：“至冤極痛，賴卿等伸雪，予甚嘉焉。…”

4. 무술변무 진주부사와 관련된 송별 기록의 분석

월사 이정귀는 선조 31년(1598) 무술변무 진주부사로 중국에 다녀오면서 그의 첫 번째 연행기록인 『무술조천록(戊戌朝天錄)』 상·하를 남겼다. 이 글에는 연행을 함께 떠난 사람들과 중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수창한 시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가 고국을 떠나던 11월에 송별을 위해 전해준 글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여기서 소개하는 송별 기록은 위창(葦滄) 오세창(吳世昌)이 편집한 『근묵(槿墨)』 34첩을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서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의 5권의 영인본으로 묶은 책에 들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자료집에는 인물과 연대가 분명하면서 문집에 수록되지 않은 5편의 송별 기록이 필자의 필적과 함께 남아 있다.

김덕겸(金德謙)의 「봉신진주부사행(奉贐陳奏副使行)」, 김순명(金順命)의 「이참판진주지행(李參判陳奏之行)」, 윤근수(尹根壽)의 「봉송이참판이진주부사여경(奉送李參判以陳奏副使如京)」, 이달(李達)의 「봉송이시랑연경지행(奉送李侍郎燕京之行)」, 황진(黃進)의 「두문병거사절인사홀몽진주부사간색별어과갈유분 사부득이감정일률이서비사(杜門屏居謝絕人事忽蒙陳奏副使懇索別語瓜葛有分 辭不得已敢呈一律以紓鄙思)」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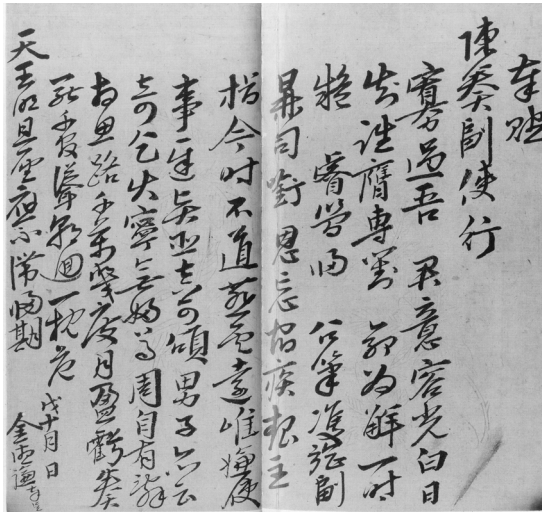
4.1 김덕겸의 「봉신진주부사행」

김덕겸(金德謙, 1552~1633)³⁸⁾은 본관은 상주(尙州). 자는 경익(景益), 호는 청승(靑陞)이다. 선조 12년(1579)에 생원·진사에 합격하고, 1583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선조 27년(1594) 형조좌랑이 되고 선조 30년(1597)에 문과증시에 병과로 합격하였다. 같은 해 공조정랑이 되었으나 적당한 인물이 아니라는 정언 조즙(趙澫)의 탄핵을 받고 체직되었다. 선조 31년(1598)에 북청판관, 선조 38년

38)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덕겸(金德謙). [검색일자 2016. 10. 4.]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08928>>.

(1605)에 충청도사 등 외직을 역임하였다. 광해군 4년(1612) 광해군을 비방하는 익명의 언서(諺書)가 집에 투하되어 추국을 당하였다. 뒤에 노인직으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오르고 집에서 은거하였다. 시로 명성이 높았으며 저서로는 『청록집』이 있다.

그가 남긴 송별시는 『봉신진주부사행』의 제목으로 오언배율 10구 20행이다. 김덕겸의 필적인 원문을 <그림 1>로 소개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출처: 『근묵(槿墨)』 仁 330-331

<그림 1> 金德謙의 「奉臚陳奏副使行」

寡過吾君意
容光白日知
誰膺專對命
爲解一時疑

허물을 줄이려고 하는 우리 임금님의 뜻이니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백일은 아시네
누가 전대(專對)³⁹⁾의 명을 받아
일시의 의혹을 풀겠는가?

39) 전대(專對): 1. 다른 사람이 묻는 것을 혼자만의 지혜로 대답함. 2. 외국에 나간 사신이 질문을 받으면 혼자 답변을 도맡아 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사신(使臣)'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睿簡歸公筆^{하아}
 雙旌鼎鼎司^라
 啣恩忘宿疾^{하고}
 報主指今時^라
 不道燕雲遠^{하고}
 唯嫌使事遲^라
 賢臣眞可頌^{하며}
 男子亦云奇^라
 乞火寧無婦^며
 尊周自有辭^{이네}
 相思路千萬^{이라}
 幾度月盈虧^아
 奏罷千官聳^{하고}
 朝迴一枕危^라
 天王明且聖^{하니}
 應不滯歸期^라

임금의 선발은 공의 문필을 뽑아
 쌍정(雙旌)⁴⁰은 정사(鼎司)⁴¹를 도왔네
 은혜에 감동되어 묵은 병도 잊고
 임금 은혜 보답은 이 때임을 아네
 연경이 멀다고 말하지 말고
 오직 사신의 일이 늦어짐을 걱정하시게
 현신으로서 진실로 칭송할만하며
 남아로서도 훌륭하다 할 수 있네
 불을 구하는데 어찌 아내자가 없었으며
 존주에 스스로 사언이 있다네
 서로 그리워하는 길은 천만 리
 달은 몇 번이나 찼다 이지리지겠는가?
 상주(上奏)가 과하면 온 관리들 으쓱하고
 조정에 돌아오면 높은 베개 베고 쉬겠네.
 천자는 현명하고 성스러우니
 돌아올 기일을 지체시키지 않으리라

戊戌(선조 31, 1598)十月日金德謙奉呈

이 시의 운자는 지(支)자 운통(韻統)의 평성운자이며, 제1구의 지(知), 제2구의 의(疑), 제3구의 사(司), 제4구의 시(時), 제5구의 지(遲), 제6구의 기(奇), 제7구의 사(辭), 제8의 휴(虧), 제9구의 위(危), 제10구의 기(期)가 운자들이다.

이 시는 의미상 세 단락으로 나뉜다. 제1단락인 제1구부터 제3구까지는 월사이정귀가 지은 『무술변무주(戊戌辨謬奏)』를 선택하고 진주부사로 발탁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제2단락인 제4구부터 제7구까지는 월사의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중국 연경에 가니 사신의 일이 늦어짐을 걱정하지 말라고 독려하였고, 이 일이 월사에게 있어서 얼마나 훌륭한 것이며 정성을 다하여 외교를 펼치기를 기원하였다. 제3단락인 제8구부터 제10구까지는 사행 길이 멀어 달이 몇 번이나 찼다 이지러질 것이고, 주문을 올리는 일이 끝나면 온 관리들이 으쓱하고 조정에 돌아오면 영광스러울 것이며, 명의 황제는 현명하고 성스러워 돌아올 기일을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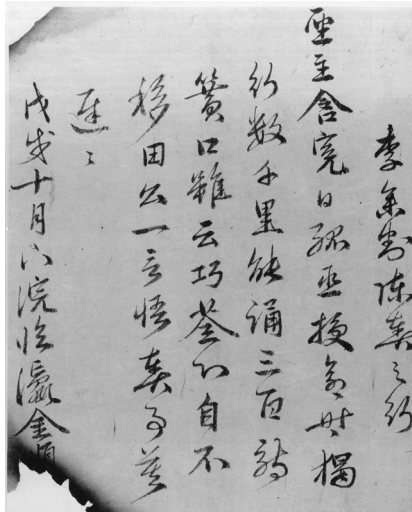
40) 쌍정(雙旌): 고관이 출행할 때 의장으로 쓰는 기. 여기서는 사신의 행차를 가리킨다.
 41) 정사(鼎司): 조정의 중신. 여기서는 정사(正使)를 일컫는다.

4.2 김순명의 「이참판진주지행」

김순명(金順命, 1561~1614)은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정보(正甫) 또는 정수(正受). 호는 월봉(月峰). 아버지는 광렬(光烈)이며, 어머니는 성효원(成孝元)의 딸이다. 부인은 안경설(安景說)의 딸이다. 선조 15년(1582) 진사시를 거쳐 선조 21년(1588) 문과에 급제하였다. 승지와 감사를 역임하였다.

그가 남긴 송별시는 「이참판진주지행」의 제목으로 오언율시이다.

김순명의 필적인 원문을 <그림 2>로 소개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출처: 『근묵(槿墨)』 仁 399

<그림 2> 金順命의 「李參判陳奏之行」

聖主含冤日
孤身投命時
獨行數千里
能誦三百詩
簧口⁴²雖云巧
荃心⁴³自不移^라

임금께서 원한을 품은 날은
외로운 신하 목숨을 바치는 날이네
홀로 수천 리를 가서
사신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리라
험뜯는 말이 아무리 교묘해도
황제의 마음 변함이 없으리라

田公⁴⁴⁾一言悟_{하야}
奏事莫遲遲_라

전공의 한 마디 말 깨달아
진주의 일을 지체하지 말게

戊戌(선조 31, 1598)十月下浣 臨瀛 金順命

이 시의 운자는 지(支)자 운통(韻統)의 평성운자이며, 제1구의 시(時), 제2구의 시(詩), 제3구의 이(移), 제4구의 지(遲)가 운자들이다.

오언율시 중 제1구부터 제2구까지는 선조가 정응태의 무고로 원한을 품어 월사 이정귀가 사신의 명을 받으니 홀로 수천 리 길을 가서 사신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노래하였고, 제3구부터 제4구까지는 무고가 아무리 교묘해도 천자의 마음이 변함이 없길 바라고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여 진주의 일을 지체하지 말도록 부탁하고 있다.

4.3 윤근수의 「봉송이참판이진주부사여경」

윤근수(尹根壽, 1537~1616)⁴⁵⁾는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자고(子固), 호는 월정(月汀)이다. 김덕수(金德秀)·이황(李滉)의 문인으로 명종 13년(1558)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승문원권지부정자에 임용된 뒤 승정원주서·춘추관 기사관 등을 거쳐 명종 17년(1562) 홍문관부수찬이 되었다. 이 때 기묘사화로 화를 당한 조광조(趙光祖)의 신원(伸冤)을 청원했다가 과천현감으로 체직되었다. 명종 20년(1565) 홍문관부교리로 다시 기용된 뒤 이조좌랑·정랑(正郎) 등을 차례로 지내고, 이듬해 의정부사인·지제교 겸 교서관교리(知製教兼校書館校理)로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선조 5년(1572) 동부승지를 거쳐 대사성에 승진, 이듬 해 주청부사(奏請副使)로 명나라에 가서 종계변무(宗系辨誣)⁴⁶⁾를 하

42) 황구(簧口):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이른다.

43) 전심(荃心): 제왕의 마음을 의미함. 전(荃)은 향초인데 「이소(離騷)」에서 임금을 상징하는 말로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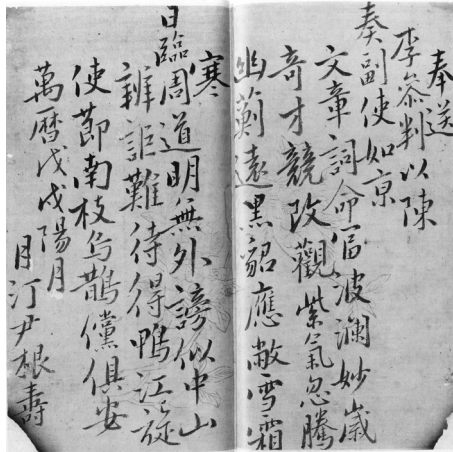
44) 전공(田公): 전석(田錫)을 가리킴. 자는 표성(表聖), 송나라 현신으로 직언을 잘하였다.

45)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윤근수(尹根壽). [검색일자 2016. 10. 20.]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42241>>.

였다. 선조 22년(1589)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파견되었으며, 귀국할 때 『대명회전전서(大明會典全書)』를 가져왔다. 이듬해 중계변무의 공으로 광국공신(光國功臣) 1등에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으로 봉해졌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예조판서로 다시 기용되었으며, 문안사(問安使)·원접사(遠接使)·주청사 등으로 여러 차례 명나라에 파견되었고, 국난 극복에 노력하였다. 선조 37년(1609)에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봉해졌다. 청백간손(淸白簡遜)하고 문장이 고아하며 필법이 주경(迺勁)해 예원(藝苑)의 종장(宗匠)이라 일컬어졌다 한다. 저서로는 『사서토석(四書吐釋)』 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그가 남긴 송별시는 「봉송이참판이진주부사여경」의 제목으로 칠언율시이다. 윤근수의 필적인 원문을 <그림 3>으로 소개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출처: 『근목(槿墨)』 仁 238-239

<그림 3> 尹根壽의 「奉送李參判以陳奏副使如京」

文章詞命富波瀾^{하야}
妙歲奇才競改觀^{이라}

문장과 외교사령에 문체가 다채로워
젊은 시절 뛰어난 재주 다투어 다시 보았네

46) 명나라 『태조실록』과 『대명회전』에 이성계의 가계가 고려의 권신 李仁任의 후손으로 잘못 기록된 것을 시정하도록 요청한 일이다.

紫氣忽騰幽薊遠^{하고}
黑貂應敝雪霜寒^{이라}
日臨周道明無外^{하고}
誘似中山⁴⁷⁾辨詎難^{이라}
待得鴨江旋使節^{하니}
南枝烏鵲儻俱安^{이라}

자주빛 기운은 멀리 유주와 계주까지 오르고
검은 표범 가죽은 차가운 눈서리를 응당 막으리라
해는 넓은 길에 임해 끝없이 밝고
모함은 중산과 같으나 변증하기 어찌 어려우리
압록강에서 돌아오는 사절단을 기다려 만나리라
남쪽가지에 앉은 까막까치는 모두 평안하리라

萬曆戊戌(선조 31, 1598)陽月月汀尹根壽

이 시의 운자는 한(寒)자 운통의 평성운자이며, 제1구 제1행의 난(瀾)과 제1구 제2행의 관(觀), 제2구의 한(寒), 제3구의 난(難), 제4구의 안(安)이 운자들이다.

칠언율시 중 제1구부터 제2구까지는 월사 이정귀의 문장과 외교사령에 문체가 다채로워 젊은 시절의 뛰어난 재주를 다시 보았고, 사신 가는 길은 서기가 어려우주와 계주까지 가고 진주부사가 입은 검은 표범 가죽은 눈서리도 막으리라라고 노래하였다. 제3구부터 제4구까지는 가는 길이 매우 밝고 모함은 중산과 같으나 변증할 수 있고 압록강에서 돌아오는 사절단을 맞을 때는 우리나라는 모두 평안하게 될 것이라 기술하고 있다.

4.4 이달의 「봉송이시랑연경지행」

이달(李達, 1539~1612)⁴⁸⁾의 본관은 홍주(洪州). 자는 익지(益之), 호는 손곡(蓀谷)·서담(西潭)·동리(東里). 원주 손곡(蓀谷)에 묻혀 살았기에 호를 손곡이라고 하였다. 이수함(李秀咸)의 서자이다. 그는 당시의 유행에 따라 송시(宋詩)를 배우고 정사룡(鄭士龍)으로부터 두보(杜甫)의 시를 배웠다. 그는 이백·왕유·맹호연의 시를 익혔다. 문단에서는 이달과 최경창(崔慶昌)·백광훈(白光勳)을 삼당시인(三唐詩人)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봉은사(奉恩寺)를 중심으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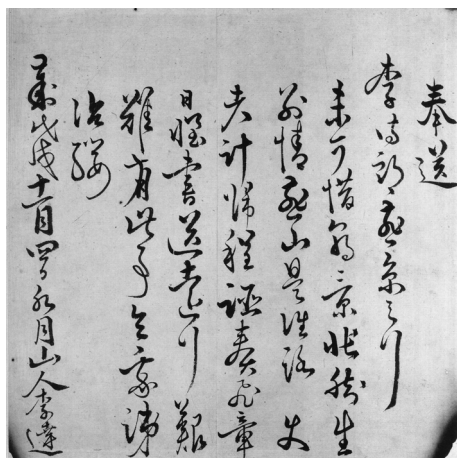
47) 중산(中山): 임금이 신하를 신임하는 것을 가리킴. 전국시대 위나라 장수 악양(樂羊)이 중산을 정복할 때까지 비방의 글을 임금이 모아두었던 고사이다.

48)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달(李達). [검색일자 2016. 10. 20.]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43945>>.

여 여러 지방을 찾아다니며 시를 지었는데,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모였다. 임계(林悌)·허봉(許篈)·양대박(梁大樸)·고경명(高敬命) 등과도 자주 시를 지었다. 한때 한리학관(漢吏學官)과 중국 사신을 맞는 접빈사의 종사관으로 잠시 일하기도 했다. 그는 일흔이 넘도록 자식도 없이 평양의 한 여관에 얹혀살다가 죽었다. 그의 시는 신분 제한에서 생기는 울적한 심정과 가슴 속에 간직한 상처를 기본정조로 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시어를 맛깔나게 사용했다. 근체시 가운데서도 절구(絶句)에 뛰어났다. 시집으로 제자 허균이 엮은 『손곡집』 6권 1책이 남아 있다.

그가 남긴 송별시는 「봉송이시랑연경지행」의 제목으로 오언율시이다.

이달의 필적인 원문을 <그림 4>로 소개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출처: 『근묵(槿墨)』 仁 245

<그림 4> 李達의 「奉送李侍郎燕京之行」

未可惜朝景에
悵然生別情이라
燕山是往路인데
使者計歸程이라

아침시간이 다하기도 전에
슬픈 이별의 정 생기네
연산은 갈 길인데
사신은 돌아올 날 생각하겠지

誣奏⁴⁹⁾飛章日에
懷書送遠行이라
艱難有此事하니
令我涕沾纒이라

변무의 상주문이 날아가는 날에
편지 품고 먼 길 가는 이를 전송하네
이 일의 어려움을 생각하니
눈물 흘러 갓끈을 적시네

歲戊戌(선조 31, 1598)十一月四日水月山人李達

시의 운자는 경(庚)자 운통의 평성운자이며, 제1구의 정(情), 제2구의 정(程), 제3구의 행(行), 제4구의 영(纒)이 운자들이다.

오언율시 중 제1구부터 제2구까지는 아침시간이 다하기 전에 이별의 정이 생기고 연경은 갈 길인데 돌아올 길을 생각한다고 노래하였고, 제3구부터 제4구까지는 변주의 상주문이 날아가는 날에 편지 품고 멀리 가는 이를 전송하며 이 일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눈물이 갓끈을 적시게 된다고 기술하였다.

4.5 황진의 『두문병거사절인사홀몽진주부사간색별어과갈유분사부득이감정 일률이서비사』

황진(黃進, 1542~1606)⁵⁰⁾의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경미(景美), 호는 서담(西潭)이다. 선조 7년(1574)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공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당시 의주목사로 있으면서 의주로 몽진해 온 선조를 잘 공궤(供饋: 음식을 대접함)해 그 해 8월에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하였다. 그 해 7월 공조참판에 재직 중 주청사(奏請使)로서 명나라에 가서 진병(進兵)·철병(撤兵) 등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11월에는 사은사(謝恩使)로서 다시 명나라에 가서 주청(奏請)하는 임무를 맡았다. 선조 28년(1595) 의주부윤이 되고, 정유 재란 때에는 명나라 원병의 접반관(接伴官)이 되었다. 선조 32년(1599) 행호군으로서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정헌(正憲)으로 승계해 형조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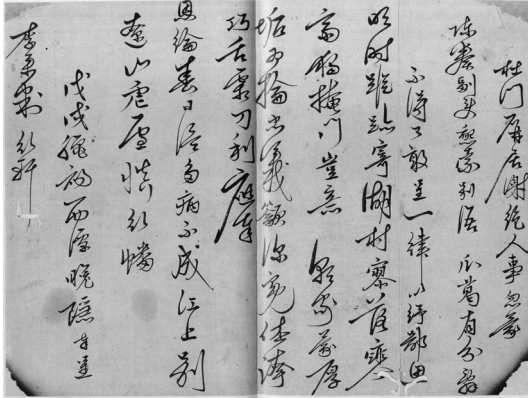
49) 변무(辨誣): 명나라 병부주사 정응태(丁應泰)가 임진왜란은 조선이 왜를 끌어들여 명을 침범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 변론이다.

50)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황진(黃進). [검색일자 2016. 10. 21.]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5344>>.

공조판서·우참찬·관중추부사·예조판서 등을 지냈다.

그가 남긴 송별시는 「두문병거사절인사홀몽진주부사간색별어과갈유분사부득이감정일툴이서비사」의 제목으로 칠언율시이다.

황진의 필적인 원문을 <그림 5>로 소개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출처: 『근묵(槿墨)』 仁 270-271

<그림 5> 黃璉의 「杜門屏居謝絕人事忽蒙陳奏副使懇索別語瓜葛有分 辭不得已敢呈一律以紓鄙思」

明時蹤迹寄湖村하야
寥落寒齋獨掩門이라
豈意朝家蒙厚垢하야
爲掄忠義鑿深寬을
休誇巧舌霜刀利하라
應奉恩倫春日溫이라
多病不成江上別하니
遼山虐雪慎行幘이라

밝은 때에 종적은 호촌(湖村)에 의지하여
쓸쓸하고 빈한한 서재에서 홀로 문을 닫고 있었네
어찌 알았으랴, 조정이 심한 치욕을 당하여
충의의 신하를 뽑아 깊은 원한을 호소할 줄을
날카로운 칼날 같은 교묘한 혀를 자랑하지 말라
봄날의 따뜻함 같은 황제의 운음을 받들리라
병이 많아 강가에서 송별하지 못하니
요동의 매서운 눈에 조심하여 다녀오시게

戊戌(선조 31, 1598)臘初 西潭晚隱 奉呈李參判行軒

이 시의 운자는 원(元)자 윤통의 평성운자이며, 제1구 제1행의 촌(村)과 제1구 제2행의 문(門), 제2구의 원(寬), 제3구의 온(溫), 제4구의 번(幘)이 운자들이다.

칠언율시 중 제1구부터 제2구까지는 황진은 몸이 아파 쉬고 있었지만 조정이 정응태의 무고로 심한 치욕을 당하여 월사가 깊은 원한을 호소하는 역할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음을 노래하였다. 제3구부터 제4구까지는 중국에 사신 가서 봄날의 따뜻함 같은 황제의 윤음을 받들게 될 것이고, 강가에서 송별하지 못하지만 요동의 매서운 눈길에 조심해서 다녀오길 기술하고 있다.

5. 결 론

월사 이정귀의 무술변무 진주부사(1598)와 관련된 송별 기록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응태의 조선무고사건에 있어서, 제 1차 참조는 도산성 전투와 관련된 사건이다. 도산성 전투는 선조 30년(1597) 12월 22일부터 이듬해 1월 4일까지 권율(權율), 마귀(麻貴) 등이 울산에 있는 도산성에서 벌어진 왜군과의 싸움으로 조·명 연합군이 초반의 승세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패배하였다. 이 전투의 결과는 명의 주전파와 강화파의 대립으로 복잡하게 휘말렸다. 정응태는 유격 진인중(陳寅中)과 주승(周陞)과 합세하여 경리 양호가 전쟁 상황에 대해 황제를 속였다고 탄핵하였다. 조선에서는 조선의 입장을 표명한 진주문을 작성하여 선조 31년(1598) 7월 1일 배신(陪臣) 최천건(崔天健)과 서장관 경섭(慶漣) 등을 보내서 도산 전투의 시말을 갖추어 아뢰고 경리가 무함 당한 것을 변명하게 되었고, 그해 7월 6일에 중국에서는 동정(東征)을 절대로 중지해서는 안 되며 군량을 감하여서도 안 된다고 결론내렸다. 제 2차 참조는 선조 31년(1598) 6월 정응태는 양호(楊鎬)가 전라도와 경상도의 적과 가까운 지방의 험준한 곳에 의지하여 성을 쌓아서 진을 치고 머물면서 일본군을 막아 지키는 곳으로 삼으려 한 것에 대해 흉악하게 무고한 것으로 선조는 선조 31년(1598) 6월 23일 이에 대해 강력 대응을 지시하였으며, 그해 7월 14일 2차 진주사로 좌의정 이원익(李元翼)과 참판 허성(許箴)이 결정되었으며 월사 이정귀가 작성한 주문이 채택되었다. 제 3차 참조는 선조 31년

(1598)의 9월 21일 조선이 양호를 구하려고 한 데 대해 정응태가 불만을 품고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를 근거로 조선이 일본과 통교하였다는 이유로 일으킨 것이다. 명에서는 만세덕(萬世德)을 조선에 보내 경리(經理)를 맡게 하였고, 급사(給事) 서관란(徐觀瀾)으로 하여금 다시 명백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선조는 이에 대응하여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정무를 중단하였고, 선조 31년(1598)의 10월 21일에 병조참지 월사 이정귀가 작성한 변무주문이 완성되었으며, 백사 이항복, 월사 이정귀 및 해월 황여일을 중국으로 파견하였다.

2) 월사 이정귀의 무술변무를 위한 외교활동에 있어서, 선조 31년(1598) 9월 21일 명의 병부주사(兵部主事) 정응태는 참소대상을 양호에서 조선으로 바꾸어 황제에게 주본(奏本)을 올려 탄핵하였다. 이에 대해 같은 해 10월 21일 월사 이정귀가 변무주문을 저술하여 각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논박하였다. 첫째, 조선이 일본을 끌어들이어 임진왜란을 일으켰다고 한 것에 대해, 임진왜란은 조선이 도요 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정명가도(征明假道)를 거절하여 일어난 것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해동기략』에 근거하여 조선이 일본의 연호를 사용하고, 일본에 조공을 바쳤다고 한 것에 대해, 연호는 나누어 쓴 적이 없고, 일본에 조공했다는 것은 모함이라고 해명하였다. 셋째, 조선이 천조의 칭조(稱祖)·존상(尊上)을 하고, 공순(恭順)한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선왕들의 묘호를 조(祖)라고 호칭한 일은 전일의 잘못을 승습(承襲)하여 외람되게 존칭을 더하고 서로 전수하며 고칠 줄 모른 것을 인정하였다. 다만 대명률(大明律), 대통력(大統曆), 복색(服色), 예(禮)와 조선에서 행하는 영조의(迎詔儀), 배표례(拜表禮), 망궐례(望闕禮)는 천위(天威)를 대하듯이 하여 공순한 의리를 지켰음을 분명히 하였다. 넷째, 조선이 양호와 결탁하여 천자를 속였다는 것에 대해, 양호가 조선을 위해 싸웠는데 정응태에게 모함을 당하여 변명한 것일 뿐 다른 뜻이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정사 이항복, 부사 이정귀, 서장관 황여일 일행은 선조 31년(1598) 11월에 한양을 떠나 선조 32년(1599) 정월 24일에 북경에 도착하였다. 월사는 정사 이항복을 따라다니며 변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응태의 무고를 해결하는데 일조하였고, 같은 해 윤 4월 13일에 한양으로 돌아왔다.

3) 세자책봉 주청정사와 관련된 송별기록은 5편이 송별 기록이 남아 있다. 김덕겸(金德謙)의 『봉신진주부사행』, 김순명(金順命)의 『이참관진주지행』, 윤근수(尹根壽)의 『봉송이참관이진주부사여경』, 이달(李達)의 『봉송이시랑연경지행』, 황진(黃進)의 『두문병거사절인사홀몽진주부사간색별어과갈유분사부득이감정일률이서비사』이다.

시의 형식은 오언배율 10구 20행 1편, 오언율시 2편, 칠언율시 2편이다. 운자는 지(支)자 운통의 평성운자 2회, 한(寒)자 운통의 평성운자 1회, 경(庚)자 운통의 평성운자 1회, 원(元)자 운통의 평성운자 1회가 사용되었다.

시의 내용은 대부분 선조가 정응태의 무고로 심한 치욕을 당하여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고 외로운 신하인 월사 이정귀가 이를 해결하는 임무를 맡았으니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를 가슴 아파하고, 월사의 문장과 외교사령의 문체가 다채로워 정성을 다하여 외교를 펼쳐 황제가 현명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원하고 있다. 또한 그를 떠나보내는 마음들의 표현은 요동의 매서운 눈에 조심하기를 바라고, 서로 그리워하는 길이 천만리여서 달이 몇 번이나 차고 이지러질 것이며, 떠나는 먼 길과 일의 어려움을 생각하니 눈물이 흘러 갓끈을 적신다고 절절하게 기록하였다.

<참고문헌>

김우진. “月沙 李廷龜의 對明 외교활동 - 선조와 광해군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1권(2012). 115-151.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32권, 선조 31년 9월 1일 계미(癸未).

『선조실록(宣祖實錄)』 95권, 선조 30년 12월 30일 병술(丙戌).

『선조실록(宣祖實錄)』 96권, 선조 31년 1월 1일 정해(丁亥).

『선조실록(宣祖實錄)』 96권, 선조 31년 1월 4일 경인(庚寅).

『선조실록(宣祖實錄)』 96권, 선조 31년 1월 8일 갑오(甲午).

『선조실록(宣祖實錄)』 96권, 선조 31년 1월 9일 을미(乙未).

『선조실록(宣祖實錄)』 101권, 선조 31년 6월 23일 병자(丙子).

『선조실록(宣祖實錄)』 102권, 선조 31년 7월 1일 갑신(甲申).

『선조실록(宣祖實錄)』 102권, 선조 31년 7월 6일 기축(己丑).

『선조실록(宣祖實錄)』 102권, 선조 31년 7월 15일 무술(戊戌).

『선조실록(宣祖實錄)』 104권, 선조 31년 9월 21일 계묘(癸卯).

『선조실록(宣祖實錄)』 105권, 선조 31년 10월 21일 계유(癸酉).

申旻.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권5.

申旻.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권6.

『선조실록(宣祖實錄)』 112권, 선조 32년 윤4월 13일 신묘(辛卯).

오세창 편,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편역. 『근묵(槿墨)』. 성균관대학교, 2009.

李廷龜. 『월사집(月沙集)』 卷2. 『무술조천록(戊戌朝天錄)』. 한국고전번역원, 1999.

허지은. “丁應泰의 ‘朝鮮誣告事件’을 통해본 조·명관계.” 『史學研究』 76권 1호 (2004). 169-205.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덕겸(金德謙). [검색일자 2016. 10. 4.]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08928>>.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윤근수(尹根壽). [검색일자 2016. 10. 20.]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42241>>.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달(李達). [검색일자 2016. 10. 20.]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43945>>.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황진(黃進). [검색일자 2016. 10. 21.]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5344>>.

